

# 아침에 고친 승강기 오작동...광주서 40대 여성 추락사

## 매곡동 아파트...사고 전날·당일 두차례 점검 불구 12층서 문 열려 내리려다 갑자기 올라가며 날벼락 안전스위치 고장 가능성...유지보수업체 부실점검 여부 조사

광주 한 아파트 승강기가 오작동하면서 승강기에서 내리려던 40대 여성이 승강기 통로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승강기 점검업체가 사고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마친 뒤 정상 가동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부실한 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매일 한 차례 실시토록 한 자체 점검의 경우 대부분 승강기 업체가 유지·관리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8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S아파트 A

동 승강기 지하 통로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J(여·49)씨가 숨져 있는 것을 S엘리베이터 직원 B(35)씨가 발견, 신고했다. B씨는 이날 승강기가 멈춰 섰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안에 설치된 CCTV 확인결과, J씨는 이날 1층에서 승강기를 탄 뒤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던 중 갑자기 승강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인 S엘리베이터 직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승강기에서 '통통통' 하는 소리가 나고 22층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두 차례 현장을 방

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강기는 지난 3월 20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정기검사서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된 점으로 미뤄 승강기 겹면에 설치된 안전스위치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 문이 열리면 추락방지장치에서 승강기가 자동으로 멈춰서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안전스위치가 각 층 승강기 겹면에 설치돼 있는데, 이 안전스위치가 오작동하면서 승강기가 작동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날

승강기 고장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S엘리베이터 직원 등의 혐의를 적용,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승강기 안전 사고를 계기로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승강기 수는 화물용 520대·승객용 1만4808대·에스컬레이터 713대 등 1만6420대에 이른다. 승강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데 자체 점검

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고용, 점검을 하는 방식보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맡겨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맡기다보니 입주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안전교육도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입주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심야 식당서 흉기 상해 전직 간호사 응급처치 40대 남성 생명 건져

심야시간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족 간 흉기 상해사건이 발생했으나 손님으로 와있던 전직 간호사의 도움으로 40대 남성이 생명을 건졌다. 지난 21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정모(49)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손님 A(여·29)씨가 식당을 나서려던 찰나 식당 한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술자리에 모여 가족간 제사와 채무 문제로 다툰 A씨가 갑자기 남동생(47)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것이다. 흉기를 뽑아낸 자리에선 피가 검잡을 수 없이 솟구쳤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어요!"라며 소리치고 허둥질 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A씨가 가족들에게 119에 신고를 하게 하고 응급처치에 나섰다. 과거 응급실에서 6년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동맥을 건드려 큰일 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지혈에 집중했다. 이후 출동한 119구조대가 정체를 데리고 병원으로 떠나자 A씨는 마음을 놓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과다출혈로 한때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회복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응급실 근무 경험에 미뤄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구나 싶어 못 본체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주민증 발급 설레는 고교생

2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에서 만17세 이상 재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문을 찍고 있다. 북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1개 고교를 방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법규 감독해야 할 경찰차가 되레 교통법규 위반 잦아

전남, 작년 174건, 전국 4번째  
광주,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아  
도로 위의 무법자는 경찰차인가. 전남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경찰이 되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월~6월) 경찰차

교통법규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74건(9.8%)이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는 제외된 수치로, 경기(272건)·서울(188건)·경북(181건)경찰청에 이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4위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1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 전국 2위를 기록했었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 17건 ▲전용차로 위반 1건 등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개월 간 모두 72건(4.06%)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88건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경찰청 올해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대 광역시에서는 두번째로 많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 43건 ▲전용차로 위반 1건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세월호 침몰 지점 '협수로'인가 아닌가

### 협수로 통과엔 선장이 지휘해야 책임 여부 놓고 재판서 논쟁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점은 '협수로'(狹水路)인가 아닌가. 2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 심리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 재판도 사고 발생 지점을 '협수로'로 봐야 하는지가 논쟁거리가 됐다. 선원법상 ▲협수로 통과 ▲입출항 시 ▲그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 한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상태였다. '협수로'라면서 선장은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를 지켰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하지만 이 선장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은 진도 맹골수도 끝부분으로 협수로가 아니다. 섬과 섬 폭이 11km"라고 했다.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히레나호의 선장도 협수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맹골도와 거제도 사이인 맹골수도는 폭이 4.5km에 불과해 협수로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반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은 맹골수도를 이미 통과해 8km가량 떨어진 병풍도 인근 해역, 여기에서 관매도까지 폭이 11km에 달한다. 협수로로 보기에 무리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교롭게 학설로도, 실무적으로도 협수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재판부도 공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든지, 당시 날씨·조류 등을 반영했을 때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지휘 의무가 있는 구간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었다. 검찰이 해양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 "협수로가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 같은 의도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조차 수긍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엇갈리는 듯한 증언도 나왔다. 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했던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날 "사고 지점은 협수로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애매모호한 답변 탓에 이 선장 변호인이 되풀이 "협수로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만한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어 김경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같은 질문에 "폭의 개념으로 보서는 협수로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5개월이 넘는 사상 발생 지점에 대한 특성조사 명확하게 정리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시각도 엇보인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형마트서 식료품 훔친 50대 주부 "생리도벽 때문에..."

생리도벽...생리 도벽증을 주장하는 50대 주부가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보안팀에 의해 적발돼 경찰서 행.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정모(여·53)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5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형마트 1층 식품매장에서 한우·전복·대추·불가리스 등 16개

종류의 식료품(시가 1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대를 빠져나왔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팀 직원이 CCTV를 확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는데, 경찰에서 "생리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무등 장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전직업 운영서 1,100만 현재상업증 매가 13억 (보증금 용자 포함) ★사우나·납작원구형(침실 및 타일)★
- 나주 삼영동 영장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8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유달 경기장5분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역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회과 나무 식재된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매가 3억1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보 3천 300 상점용 시비절정 시설완비 최고위성형리 영업증 식사 및 커피전문점
-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58개 오피스텔 매가 35억(월세 3000만 수익)

(주)대신 062)527-7600

###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실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 건1031㎡) / 감평가 1,612,900,800 / 최자가 1,612,900,800 (신축1회)투자적합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92.57㎡) / 감평가 2,470,120,980 / 최자가 1,729,085,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오치동 (토지378.9㎡, 건659.25㎡) / 감평가 504,733,800 / 최자가 353,314,000 (유찰3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1094㎡, 건4489.1㎡) / 감평가 1,124,890,300 / 최자가 1,847,950,000 (유찰7회)투자적합	
근린/주/택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138.8㎡, 건202.77㎡) / 감평가 1,688,070,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본촌동 (토지36.67㎡, 건72.74㎡) /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찰3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 감평가 164,495,540 / 최자가 115,147,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315㎡, 건335.82㎡) / 감평가 502,511,640 / 최자가 351,758,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유동 (토지229.7㎡, 건608.69㎡) / 감평가 1,983,295,050 / 최자가 2,146,646,000 (유찰2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69㎡, 건72.74㎡) /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찰3회)투자적합	
숙/박/시/실	
·광주 서구 경원동 (토지235㎡, 건2980.38㎡) / 감평가 780,300,460 / 최자가 546,210,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 감평가 274,555,800 / 최자가 192,189,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병암동 (토지1182.4㎡, 건2289.6㎡) / 감평가 3,248,468,500 / 최자가 1,819,142,000 (유찰2회)투자적합	
오피스/텔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18,398㎡, 건30.8㎡) / 감평가 42,000,000 / 최자가 29,400,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19.27㎡, 건59.04㎡) / 감평가 85,000,000 / 최자가 59,500,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6㎡) / 감평가 350,000,000 / 최자가 100,352,000 (유찰5회)투자적합	
다/가/구(원룸등)	
·광주 북구 누문동 (토지1271.1㎡, 건1566.7㎡) / 감평가 506,308,700 / 최자가 354,416,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신항동 (토지256㎡, 건300.3㎡) / 감평가 1,543,888,500 / 최자가 1,080,708,000 (유찰1회)투자적합	
대지	
·광주 광산구 소촌동 (토지1956㎡) / 감평가 2,073,360,000 / 최자가 1,451,352,000 (유찰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1137㎡) / 감평가 351,333,000 / 최자가 245,933,000 (유찰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득처럼 가족처럼(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가능합니다.)/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행, 설계, 부동산관련 전례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주)대신 010-6670-9800

###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후분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 정모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북구 우산동 사우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 광산구 오룡동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통 58개 월수익 3000 매가 35억
- 수원지구 상가 1층 (19평)대방 5차 A 후분 매가 3억5천(보2천 월 140)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4층중 3층) 85평 신안은행 뒤,모아일가(사기앞)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8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삼영동 2층 확원건물매매 매가2억8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 오피스텔 매매·임대

- 쌍촌동원룸 오피스텔매매(2층)은원역 1번 출구 2번(월수리 전세교체)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영) (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3천(용 6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9800만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매매(6층) ①19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7천8백(임대 보500, 월40) ②13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3백--33만원 매매가 5천만원

### 신축원룸 매매

-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1층 정모1.1,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부동산 직원구함(남·녀 실장) 여성 급여제 가능

신한 010-6832-9700